

‘광주형 일자리’ 운명의 날

광주시, 투자협약서 수정안 들고 오늘 현대차와 마지막 협상 타결 땀 합작법인 일사천리·무산 땀 ‘새 일자리 모델’ 사라져

현대자동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마지막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지역노동계가 주춤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과 여·야·정의 전폭적인 지지 선언, 광주시의 계속되는 설득 등으로 다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논의에 합류한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노노 갈등’을 우려, 세부 조항 일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7일 오후 8시부터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유지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 추진단 두 번째 회의를 열고 투자협약서 수정안을 검토했다. 지역노동계의 일부 요구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할 지 여부를 놓고 광주시,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문가 등이 논의를 계속하면서 8일 새벽 늦게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이 협약서 수정안을 들고 8일 현대차와 마지막 협상을 가진 뒤 타결 또는 무산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타결될 경우

노사민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 체결, 신설 합작법인의 경영수지 분석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진다. 현대차와 광주시는 당초 오는 2021년까지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7000억원(2800억원 참여자 투자·4200억원 금융권 차입)을 투자, 연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위탁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현대차는 2대 주주로 참여, 지분 참여자 초기 투자금 2800억원의 19% 수준인 53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반면, 무산될 경우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 확실시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무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미래 제조업의 혁신 방안인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성 현대차 노조 및 민주노총의 압력에 굴복한 모양새가 될 수 밖에 없어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도 높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광주시 역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 대기업과 신뢰 관계가 무너져 예상 외의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역 노동계를 잘 설득해 8일 현대차 협상까지 이어진다면 모두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인 만큼 최대한 지역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18계엄군 성폭행 등 여성 인권침해 정부·군 대표해 머리숙여 사죄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편> 정 장관은 이날 직접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행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면서 머리를 숙였다.

그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꿨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군사정부가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피해여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송영우 전 국방부 장관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행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지자 광주시민, 더 나아가 전 국민에 사과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수능 일주일 앞 여고 풍경 2019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7일 오후 광주 남구 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복도에 나와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뉴스초점/ 구도심 상업지역 주거지화 이대로 좋은가

광주 근·현대 역사 지우고 주상복합아파트 ‘우후죽순’

금남로 등 30층 이상 ‘쑥쑥’ 광주 도시형태의 원형 유명 건축물 하나 둘 사라져 부동산 투기까지 대책 시급

광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동구에 주상복합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근·현대의 건축물들을 아우르고 있는 시가지의 역사가 하나둘 지워지고 있다. 광주 도시형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구의 상업지역이 최근 급속도로 주거지로 바뀌면서 부동산 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비롯한 구도심 전반에 대한 고도 제한 적용, 공공기여제의 도입을 통한 구도심 재생 재원 마련, 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지침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교회는 1917년 1월 30일 북문안교회에서 독립해 북문밖교회로 불렀다가 1921년 1월 3일 오방 최흥종 목사가 부임한 후 1925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한 바 있는 광주 기독교의 산역사다. 1950년대 후반부터 동시상영관으로 문을 열었다가 1966년 공연장으로 정식 준공 허가를 받아 개봉관으로 운영된 태평극장도 지난 2002년 폐쇄된 지 16년만에 22층 규모의 오피스텔 2039개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로의 변신을 꾀한다.

과거 동구의 거점역시대로 인기가 높았던 명성예식장 역시 지난 2013년 리모델링을 통해 빛고을문화관 건립이 검토됐으나 결국 건설업체가 부지를 사들여 생활속박시설 218개, 오피스텔 215개 등이 들어서는 36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제시해 현재 광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광주의 원형인 동구 관내 유명 건축물들이 대부분 1960~70년대 지어져 노후화되는데 도심의 상업기능이 크게 쇠퇴하면서 사실상의 고층 주거지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외곽 택지지구 개발에 이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가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법적 절차나 주민 동의 절차가 까다로운 재개발·재건축보다 비교적 손쉬운 노후 대규모 건축물 철거 후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 금남로 4가 옛 중앙교회에 2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지난 6월 5일 착공한 것으로 시작으로 공동 중앙초교 인근 22층, 금남로 4가 26층, 수기동 옛 명성예식장 36층 등 20층 이상 주상복합아파트가 동구 상업지역에서 잇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심의가 진행 중이다. 2015년까지 10층 규모였던 이들 주상복합아파트들은 2017년 들어 20층 이상이 들어서더니, 최근에는 30층까지 넘어섰다.

옛 중앙교회 자리에는 414개 오피스텔과 근린시설이 들어선다. 중앙교회는 지난 2003년 서구 화정동으로 이전해 15년간 비어있던 이 부지에 25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주변 경관도

옛 중앙교회 자리에는 414개 오피스텔과 근린시설이 들어선다. 중앙교회는 지난 2003년 서구 화정동으로 이전해 15년간 비어있던 이 부지에 25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주변 경관도

이봉수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이사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구 시가지 건축물들이 너무도 쉽게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 굿모닝 예방 - 과학 저술가 이명현 대표 ▶18면
- 베나디나와 작별 - KIA 외아에 변화의 바람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눈에 보이는 그대로, 프리미엄이 됩니다!
무안국제공항 변화의 중심
무안 최초 프리미엄 아파트 한국아델리움
* 2021년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
*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확정!!!

원전 위치도
무안신공항 한국아델리움 사업부지
무안국제공항
무안역
무안신도시
무안신도시
무안신도시
무안신도시

※상기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CG로써 실제 그래픽 및 문양, 색채, 경관조명, 조경 등 디테일한 부분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변환경 및 시설물 등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규모 및 주택형은 안·하기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시 확정됩니다.

Adeliuum
무안신공항 한국아델리움
총263세대 69㎡ 84㎡ 107㎡ [예정]
문의전화 061) 876-8200
세제·이전: 무안신공항지주개발조합 | 세제·이전: 한국건설(주) | 세제·이전: 아시아인식(주)